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를 벽돌에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천인공로할 사건 벌어져...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동환경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라남도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청 앞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주관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공동주최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전남조선하청지회, 금속노조현대삼호중공업지회, 기본소득당노동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전남도당, 관해당(인문과예술의집),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광장,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민주노총영암군지부, 민주노총영암군상담소,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관예우근절을위한헌법개정운동본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남교육회의, 정의당전남도당, 조국혁신당목포시위원회, 진보당전남도당,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5.18유족회전남지부
- 문의 :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010-3371-0380)

○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유린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충격을 넘어 분노스런 상황입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폭력, 인권탄압의 사례가 종합적으로 폭발된 사건입니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가 아닌 기계처럼, 우리 곁의 이웃이 아닌 동물처럼, 이주노동자를 인식하는 문제가 이번 참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 이미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는 영암군 돼지축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출신 청년 이주노동자의 폭언, 폭행, 괴롭힘 사건, 완도군에서 일하는 계절 이주노동자 문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의 부당해고 문제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반인권적 처사, 반노동적 행태에 고통받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 이번 나주시 벽돌공장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나주시를 기초로 노동단지의 이주노동자와 농촌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어 전라남도 각 시군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언론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